

포천시-회북시 상호 관심분야 協力방안 논의

중국 회북시 당서기 일행, 포천시 방문

포천시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국제자매 도시인 중국 회북시(淮北市)의 회견회 당서기일행이 방문했다.

회견회 회북시 당서기는 일행 16명과 함께 박운중 포천시장을 예방하고 포천시와 회북시 간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관해 환담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황건우 회북공업그룹 부사장 등 경제인 5~6명이 포함되어있어 포천 및 한국과의 경제부문에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는 회북시와 지난 2002년 교류를 시작하여 2005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2~3차례씩 교류하며 행정·교육·청소년·체육·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청소년 실질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당해

한·중·일 청소년문화제행사를 포천에서 개최했으며, 2006년 9월 공무원 상호 교환과정에 관한 협의서가 체결되어 현재 회북시 공무원인 이경과(인사국 부과장)가 포천시 문화체육과 국제교류부서에서 근무중이며, 포천시 공무원인 이지영(행정7급)이 회북시정부 인사국에 근무중이다.

방한단은 아도니스골프장과 허브아일랜드를 시찰한 후 박운중 포천시장과 간담회를 갖은 뒤 반월아트홀에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관내 기업체를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활발한 교류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교육분야 및 경제·행정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讀者배가운동에 앞장서자”

주부명예기자단 제18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 임원회의가 4월12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단장 인사말과 각 임원들의 인사말 및 감독자 이상의 특강에 이어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경순 단장은 “모처럼 시장을 가보니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어 반가웠다”며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고맙게 생각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부명예기자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각 지부장 및 임원들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늘 포천신문에 기사를 작성하여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아쉽다”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포천시민의 생활상을 지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이 최고라며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에 다같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감독자 이상의 특강을 통해 “꽃집을 경영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식물 기르기’라는 주제로 몇 말씀드리겠다”며 “음식물과 양치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양치식물은



반드시 햇빛과 물이 필요하며 이것만 구분해도 식물을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식물별로 기르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강의를 실시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주부들이 평소 집에서 기르는 식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건토의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 창구에 기탁할 뜻 있는 분들의 추천도 함께 해나가자고 의결했으며 신문제작 참여의 건은 에세이, 자유기고, 칼럼, 스트레이트, 박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에 다같이 동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독자배가운동에 다같이 앞장서서 포천신문이 지역주민들의 중심매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며 구독신청서 10부씩을 받아서 1개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4@paran.com

독자배가 운동 한마음

본지 조사위원회 제21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조정선)는 4월12일 오후6시30분 제2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원회 조직강화 및 포천신문 정기독자 확보 및 광고활성화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두열 전무이사는 “들녘의 꽃들이 새봄을 알리고 있는 계절에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항상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일 부위원장장은 “한 달 만에 만나는 위원님

들의 가정과 회사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며 포천신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가 각 위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앞으로 조사위원회 조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구독 및 광고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일동고등학교 구광식 운영위원장은 “포천신문 조사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⑪ 흰꼬리수리 [white-tailed sea eagle]

생태환경 잘 보존된 포천시 발견대 전국적 관심

올 1월21일 가산면 감암리 측사 인근 밭에서 흰꼬리수리 1마리가 발견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었는데, 이후 설날(2월 17일)에도 1마리가 우리 마을에서 발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보이는 독수리 40여 마리가 내려앉아 허기를 달래며 두엄더미를 휘젓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관찰하고 있던 중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흰꼬리수리 1마리가 또다시 발견되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셔터를 눌러대던 그 순간의 감흥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발견되었던 그 흰꼬리수리와 동일 개체로, 독수리의 무리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흰꼬리수리는 꼬리부분이 하얗다고 불려진 이름인데,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1~2년 생의 어린새로 아직 이뽀처럼 꼬리가 하얗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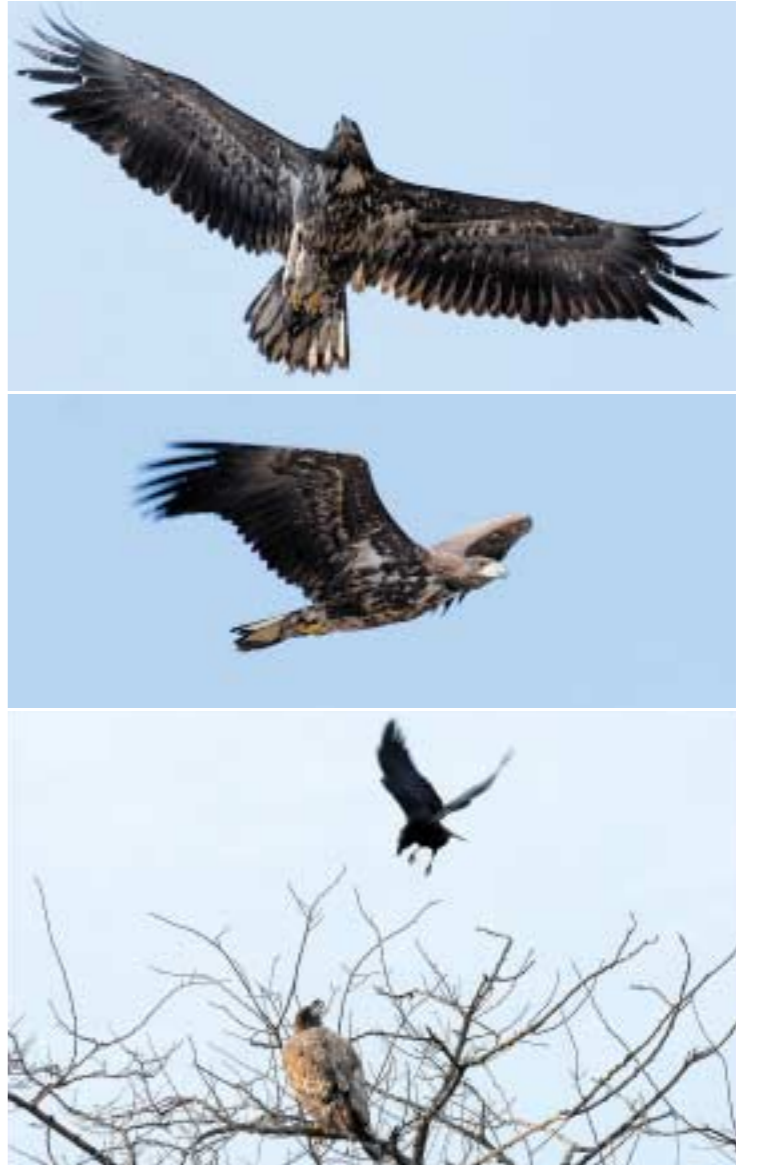
이 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243-4호로 지정되어 있는 맹금류로, 개체수가 점점 감소되어 가는 보호대상종으로 우리나라에는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해안도서 연안에 도래하는 흔하지 않은 겨울새로 몸길이는 날개를 편 길이가 200~245cm에 이르는 대형조류이며, 어린 새는 꼬리가 희고 부리는 노랑 색을 띄게됩니다.

예리한 눈과 강력한 발, 뾰족한 발톱, 칼 같은 부리로 무장한 사냥조류의 최강자 흰꼬리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면서 수면 아래의 먹잇감을 찾아 다이빙으로 순식간에 사냥을 끝내죠. 차가운 물에서 사냥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자주 사냥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더군요.

사냥을 위해 하천변을 비행하면 그곳에 있던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은 흔히백산되어 일대가 아수리장이 되어버립니다. 아쉽게도 직접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은 사진에 담지는 못하였지만 그 위용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가끔은 죽은 물고기나 물새의 사체를 먹기도 하지만 이들은 단지 독수리처럼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는 청소부가 아닌 하늘의 무적사냥꾼이죠.

그러나 지난 겨울에는 철원지방에 도래한 흰꼬리수리 1마리가



2007. 02. 18 포천시 가산면 촬영

농약 등에 오염되어 죽은 청둥오리의 사체를 먹고 2차 감염으로 폐사한 사례가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죽은 고기도 먹게 되는데, 이때 까마귀와 까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날색 까마귀와 까치들의 합동 공격을 받게되는데,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며 주변에서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면 흰꼬리수리는 텃세에 밀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야하는 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제왕답게 까치나 까마귀를 혼내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역시 나그네새의 서러움을 보여 주는군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먹이가 없을 때에는 까치를 사냥하여 먹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하늘의

제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옆의 사진은 까마귀가 자신의 영역에 앉아있는 흰꼬리수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흉내내 내고 도망가는 까마귀의 모습입니다. 흰꼬리수리는 개체수가 많지 않으며 무리생활을 하지 않아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씩 나타난 것은 우리고장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보전에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더 많은 새들이 우리고장을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홀·내촌) 공사 협력업체



최 두 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